

전남 생산 전력 전남서 사용 ‘지산지소 시대’ 열린다

〈地産地消〉

기후에너지부, 전남·제주·부산강서·경기 의왕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
에너지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싸게 공급...첨단산업 이전·유치에 큰 도움
전남, 해남에 데이터센터 ‘지산지소’ 실현...차세대 전력망 혁신 기지로

전남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토대가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전남을 비롯, 제주와 부산(강서), 경기(의왕) 4곳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했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마이크로 그리드(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와 ESS(에너지 저장 장치)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지산지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입주기업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 유치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태양광을 비롯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인데도 전력망 부족에 따른 계통 문제로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력망 확충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전기사업법상 발전과 판매 겸업이 금지의 예외가 되는 지역으로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팔 수 있게 된다. 특히 전력 판매 시 전기요금을 전력 공급자에게 시중가격(한국전력)보다 싸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유치 등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값싼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전남 이전 및 유치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전력 수요가 큰 첨단산업의 유치 가능성이 커졌다. 기후에너지부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해 선정 지역의 신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태양광발전설비가 밀집한 해남·영암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지산지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인공지능(AI) 기술로 전력 생산과 소비를 최적화하는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을 산업단지나 대학교 등에 다양하게 실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력 제어를 방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위주의 배전망에 ESS를 보급해 접속대기 물량을 최소화하면서 배전망 운영을 효율화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데이터센터 기업유치는 기업도시인 ‘솔라시도’ 운영사인 BS그룹이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차세대 전력망 사업은 정부 공모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전남을 ‘차세대 전력망의 혁신 기지’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전남 지역의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 마이크로 그리드 산단으로 조성하고 자원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력거래소가 추진하는 ESS 사업에 전남 6개 시·군이 선정되며 내년 국비 관련 예산이 반영된 상태다.

이날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앞서 발표된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 조성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전남의 재생에너지 발전 및 마이크로 그리드 등 신산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에서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을 혁신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전남도는 이번 분산특구 지정을 계기로 에너지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우원식 국회의원 광주 ‘BIXPO 2025’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5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BIXPO 2025’를 찾아 효성중공업 등 참가 기업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에너지 박람회인 BIXPO는 올해 10회를 맞아 ‘에너지를 연결하다’를 주제로 다양한 에너지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관련기사 9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 제안

‘국가 AI센터’ 무산 공식 대안
차세대 AI 산업 선도 효과 기대

광주시가 차세대 인공지능(AI) 추론 전용 인프라인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가 무산 이후 광주시가 처음 제시한 공식 대안으로, 정부가 수용할 경우 광주가 차세대 AI 산업을 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일 서울 신라호텔 ‘2025 서울미래컨퍼런스-AX 시티와 6G’ 기조연설에서 “국산 AI반도체 생태계를 키울 실증·상용화 거점이 필요하다”며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의 광주 설립을 제안했다. 이어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를 만나 광주 설립안을 제시했다.

NPU(Neural Processing Unit·신경망처리장치)는 AI 연산을 위해 특화 설계된 프로세서로, 딥러닝과 신경망 연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최적화된 인프라다. GPU(그래픽처리장치)가 대규모 학습·고성능 연산에 효과적이던데 비해, NPU는 AI 서비스의 추론 단계에 적합하며 전력 효율이 월등히 높다. 구글, 메타 등 세계 주요

빅테크 기업은 이미 NPU 개발에 나선데 이어 NPU 데이터센터 적용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NPU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 없다.

광주시의 NPU 전용 컴퓨팅센터 제안은 국가 AI컴퓨팅센터 무산에 따른 대안이자, 광주가 보유한 국산 NPU 생태계 강점을 극대화한 새로운 전략으로 해석된다.

강 시장은 “국산 AI반도체, NPU 산업 생태계 조성과 대한민국 AI 3강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국산 AI반도체 양산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AI 반도체 전문인력을 빠르게 양성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주시는 국가AI데이터센터를 축으로 국산 AI반도체 실증 생태계를 조성해왔다.

에이직랜드·에임퓨처·퓨리오사AI·리벨리온 등 25개 팹리스(반도체 설계기업)와 손잡고 1단계(2023~2024) 200억원을 투입해 퓨리오사AI·리벨리온·사피온의 국산 NPU 출시를 뒷받침했다. 올해 시작한 AI 2단계(2025~2027) 400억원 고도화·상용화에는 6개사가 참여해 AX(인공지능 전환) 수요에 맞춘 국산 NPU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공공성 있는 국산 NPU 실증·조달·확산’의 선순환이다. 센터가 구축되면 대학·연구기관의 NPU 설계·소프트웨어 인력 양성과 기업의 양산 검증이 한곳에서 맞물리고, 지자체·공공기관의 추론 수요를 초기 페퍼런스로 묶어 시장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

정부가 광주 제안을 수용해 ‘학습·추론 투트랙’을 정식 수용하면,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는 국산 NPU의 실사용·표준화·조달 연계를 통해 외산 GPU 의존도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강기정 시장은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으로 광주가 국산 AI반도체의 리더보드를 맡겠다”며 “국가AI연구소, AI+모빌리티 신도시, 메가 샌드박스형 집적단지를 묶어 ‘AI 실증도시 광주’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36조원 미국산 무기구매’ 한미정상회담 자료에 담길 듯

한국과 미국이 막판 조율 중인 한미정상회담 ‘합동 설명자료’(JFS·조인트 팩트시트)에 한국이 250억달러(36조원) 규모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측은 이미 구매를 결정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미국산 무기 목록을 미국 측에 제시하면서 2030년까지 구매 규모가 250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지휘헬기-II 사업(8700억원),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사업(3조 3000억원), 해상작전헬기(3조원 이상), F-35A 2차 사업(4조5000억원), 항공통제기 2차 사업(3조원),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8000억원) 등이 있다.

소식통은 “국방중기계획(2025~2029년)에 반영된 방위력개천사업 중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게 될 사업의 규모가 대략 250억달러”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에 제시한 구매 목록은 대체로 정부 대정부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하게 될 무기체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협상한 안보 및 관세 분야 합의 사항을 정리한 팩트시트 발표를 위해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중고차도 메르세데스-벤츠답게,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 온라인 계약금 결제
-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충족
- 🏠 국내 수입차 최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 Trade-in 프로그램
-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 1년 / 20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